

KTV

2014년 1월 27일

방송심의



기획편성부

프로그램		국민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1. 21. 17:00	시청률	0.087

【총 평】

<국민행복시대> 주요뉴스에서 '박근혜 대통령 스위스 순방', <라이브 이슈> '설 성수품 특별관리' 등 시의성 있는 아이템 선정이 눈에 띄었음. <행복 대한민국, 지역이 미래다>의 경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지자체 단체장의 개인 실적 위주로 비쳐질 소지도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함.

【구성 및 내용】

<주요뉴스>의 경우, 기자들의 리포트 외 뉴스현장의 생생한 흐름을 직접 들어보는 '현장 브리핑'이 추가되어 긴박감과 현장성을 높여주고 있음. <주요 뉴스>의 경우, 한-스위스 정상회담...산업·기술 '협력 강화', "살처분 범위 확대... 선제적 예방조치", 정부 "리비아 피랍 무역관장 안전" 등 신속하고 발빠른 아이템 접근이 돋보였음. 카드 3사의 정보누출과 같은 서민밀착형 뉴스도 다루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임.

【참고사항】

<행복 대한민국, 지역이 미래다>에서 볼 수 있듯이, '행복'과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제목과 코너명이 많아 혼동을 줄 소지가 있음.(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 등)

프로그램		희망의 새시대	
방송일자	2014. 1. 22. 11:00	시청률	0.019

【총 평】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안정화되어가고 있다는 인상이며, 꼭지 구성과 순서 배치 등이 무리가 없고 유려하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었음. 특히, 타사의 유사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국민 리포트, 집중 인터뷰 등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 시각 주요 뉴스>에서 간추린 뉴스를 기자리포트로 자세하게 다루어준 부분이 돋보였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서 대통령의 활동 모습 뿐 아니라 다보스 포럼이 어떤 행사인지에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1,21 사태' 46년, 북한 위험성 지속에서 김신조 목사의 출연은 사전에 출연자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은 듯 진행방법과 내용 등에 문제가 있었음.

【구성 및 내용】

'1.21 사태' 46년, 북한 위험성 지속 대담에서 김신조 목사는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도 거짓말하는 나라가 된다, 군사정권때 각본을 만든거다, 내가 다 말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 덮어줘야 해”라고 말하며, “예전 대통령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아는 척 해서 실패했다”며 논조에서 벗어난 이야기와 균형 잡히지 않은 자기 견해만을 늘어놓았음.

<집중 인터뷰>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에서 구체적 수치를 인용하지 않고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말해 정보전달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었음.

프로그램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		
방송일자	2014. 1. 22. 14:30	시청률	0.003

【총 평】

각각의 아이템들이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알찬 구성이었음. 기자가 직접 아이템을 취재해서 전달하는 흐름도 신뢰감을 주었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정부정책을 생활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흐름이 의미 있었음.
<스마트폰 앱으로 '안전한 겨울산행'>, <그녀가 돌아왔다! 워킹맘이여 '날개'를 달아라>, <고용 복지 서비스를 '한번에' 종합센터 개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 구석구석에서 전해지는 '희망'을 이야기했음

【구성 및 내용】

<스마트폰 앱으로 '안전한 겨울산행'>은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을 소개해, 등산객들에게 무척 유용한 정보가 되었음. 산행시간과 거리 정보는 물론 앱을 통한 조난 신고 과정과 조난 상황에서의 재난안전관리반의 대응 과정을 보여주어 집중력 있었음.

<그녀가 돌아왔다! 워킹맘이여 '날개'를 달아라>는 결혼 후 주부에서 워킹맘으로 돌아온 한지혜씨의 이야기를 시작해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음.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서비스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음.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총체적 상황, 정책의 배경 등도 짚어주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됨.**

<고용 복지 서비스를 '한번에' 종합센터 개소>는 맞춤형 고용복지의 첫걸음 남양주 고용 복지 종합센터 개소를 소개했음. 종합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센터 통합으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높아진 지역 자활센터의 기능도 함께 전했다. 정부3.0의 핵심내용인 '협업'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었음

프로그램		현장다큐 문화 행복시대	
방송일자	2014. 1. 23. 15:10	시청률	0.026

【총 평】

<한국 최초의 피겨여왕>, <그림그리기로 치매예방>, <故 '김광석'으로 부활하는 대구 '방천시장'> 등, 참신하면서도 흥미로운 아이템 선정이 매우 돋보였으나, 진행자의 부재로 인해 각 아이템들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을 주었음.

【구성 및 내용】

<한국 최초의 피겨여왕>의 경우 인물선정 및 내용, 영상구성 등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음. <故 '김광석'으로 부활하는 대구 '방천시장'>의 경우 역시, 재래시장의 부활을故 김광석' 거리조성과 연계시킨 구성의 참신함 및故 '김광석'을 다시한번 재조명한 영상구성 등이 매우 돋보였음.

【참고사항】

아이템들을 <Logo>로 연결하고 있는데, 진행자의 부재로 인해 연결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을 줄 소지도 있었음. 아이템들의 구성적 이질감 ('한국 최초의 피겨여왕'의 경우 대한니우스의 '그 때 그 사람', '그림그리기로 치매예방'은 다큐멘터리 '희망'과 유사한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줄 진행자 있었으면 좋겠음.

프로그램		통일 콘서트 공감	
방송일자	2014. 1. 23. 16:15	시청률	0.028

【총 평】

전반적으로 밝고 경쾌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시청자에게 친근감을 주었으며, 북한 이탈주민의 경험담과 시각을 반영하고 북한 노래, 연기도 즉석에서 선보여 지루하지 않았음.

그러나, 다양한 채널에서 선보이고 있는 북한관련 프로그램의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 다소 아쉬웠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처럼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북한사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시대를 맞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고민하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구성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음.

【구성 및 내용】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비교와 더불어 우상화의 배경과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력 있었음. 특히, 주순영 복讎 사랑 대표가 풀어내는 찬양 가요와 혁명영화에 대한 설명이 흥미로웠음. 방송을 통해 접하기 어려웠던 자료음악과 영상들을 볼 수 있었음.

【참고사항】

방송 자막과 자료 화면이 삽입될 때 효과음이 자주 사용되어 오히려 산만하게 느껴졌고, 자막과 자료화면이 다양한 각도에서 삽입되어 정신없는 느낌을 주었음.

프로그램		인문학 열전	
방송일자	2014. 1. 23. 19:05	시청률	0.096

【총 평】

<인문학열전>은 대중적인 프로그램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고정 시청층을 갖고 있는 힘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현대를 살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인문학을 발견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의미 있다는 생각임.

【구성 및 내용】

<우리시대 인문학-후흑(厚黑)의 눈으로 읽는 초한지>는 역사문학 평론가 신동준씨와 함께 '후흑학'을 바탕으로 초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 그러나 듣는 이의 입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내용이었음. 또한, 내용 전개가 시청자의 이해도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음. 후흑학을 설명하면서 두꺼운 얼굴 vs. 얇은 얼굴, 검은 마음 vs. 하얀 마음이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아 시청자의 이해를 도와주지 않았음.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였는지 여부로 항우와 유방을 평가하는 시간이 꽤 길었고 유방의 승리비결을 '인화'로 끝았는데 그러한 기준도 두꺼운 얼굴 vs. 얇은 얼굴, 검은 마음 vs. 하얀 마음의 의미와 관련 된 것인지조차 설명되지 않았음.

중국 고전을 짚어가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한다는 기획은 좋았지만 후흑학이 과연 바람직한 가치인지에 대한 토론이 보다 깊이 있게 진행되지 않은 채 패널의 주장도 걸러지지 않았음. 따라서, 진행자와의 토론을 통해 반론도 되는 구성이었다면 더 효과적이었겠다는 생각임.

프로그램	귀농 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14. 1. 23. 20:00	시청률	0.066

【총 평】

일반적으로 귀농인하면 떠오르는 1차적 생산자가 아닌 젊고 의욕적인 귀농 사업가를 선정해 신선함을 주었음. 귀농사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길을 찾고, 지역 특산물 활용 등 새로운 구상들을 지속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음

【구성 및 내용】

첫 도입부에서 이유식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모습으로 부터 시작하여 흥미를 유발시켰음. 신선도가 필수인 이유식 배달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소개되었다면 더욱 흥미로웠을 것이라 생각되고, 상품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에게도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임.

【참고사항】

개인정보 노출(차량번호)을 비롯해 올해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제작해야 함.

- 주인공의 66히*** 차량번호가 노출이 되었음.
- 조유행 하동군수의 노출 분량도 많고 권위적인 모습이 느껴졌음.

프로그램	대한니우스의 '그때 그 사람'		
방송일자	2014. 1. 24. 16:05	시청률	0.108

【총 평】

설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한복의 세계화에 앞장 선 '이영희 한복디자이너'를 초대한 인물선정의 시의적절함이 눈에 띄었음. 특히, 대한뉴스 1538호(1985.4.27) 및 대한뉴스 1639호(1987.4.8) 등, 이영희 한복디자이너'가 등장하는 '대한뉴스' 자료영상 활용이 타이틀과 잘 매치가 되었음

한복에 대한 역사적 유래와 우수성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특히, 한복의 세계화에 노력한 디자이너의 활동을 자세하게 보여준 기획이 좋았음. 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한복의 유래, 독도 공연, 미국과 파리의 무대까지 재미있게 들려주어 시청 재미를 한층 높여주었음. 한복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에게 우리의 한복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었음.

【구성 및 내용】

한복, 한류로 세계로 가는 길은 한복을 불모지였던 세계무대에 진출시킨 우리나라의 한복디자이너 이영희씨를 초대하여 한복의 역사와 종류, 특성과 색상, 한복의 매력 등에 대해 직접 들어보았음. 또한, 디자이너로서 사업가로서 프랑스 패션쇼, 뉴욕전시회, 카네기홀로 이어지는 세계무대에 진출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을 알아보고 한복의 세계화, 미래화에 대하여 전문가적 견해를 들어보았음.

【참고사항】

이번 회차처럼, '대한뉴스' 자료영상 속 등장인물을 출연자로 선정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나 정체성과 잘 부합한다고 봄. 또한, '대한뉴스'에서 출연자의 등장모습을 동그라미 표시 혹은 CG를 활용해 영상에서 가시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주면 더 좋을 것임.

프로그램		패러디팟! 라디오정책쇼	
방송일자	2014. 1. 24. 16:35	시청률	0.108

【총 평】

정책을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프로그램으로 정책이 주는 경직되고 딱딱한 선입견을 개그를 통해 가볍고 재치 있게 풀어냈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 산만했고 짧은 시간동안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정책 설명에 있어서는 무게감을 주지 못했으며, '패러디'의 묘미를 잘 살려내지 못한 구성이 아쉬웠음.

【구성 및 내용】

<임평순이 또 댔다>, <행정개그를 아시나요?>, <정책은 노래를 타고>, <맞짱대결 미녀와 야수의 SNS 정책대결>의 4개 코너가 계속 스피디하게 이어지고 임평순, 김윤주, 구창환 MC가 저마다의 개성을 잘 살렸음.

<임평순이 또 댔다>는 상황극을 통해 기존 지번 주소의 단점을 설명했음.

<행정개그>는 광진구청 직원들이 지번 주소 때문에 서울을 헤매는 장국영과 도로명 주소로 연인을 쉽게 찾는 왕조현을 보여주었음. <정책은 노래를 타고>는 음악감독 황호성씨가 도로명 주소를 주제로 노래를 소개했음. 조금 흥겹고 귀에 쉽게 익은 리듬으로 소개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음. <맞짱대결, 미녀와 야수의 SNS정책대결> SNS정책 대결이라고 표현이 어색할 만큼 대결구도가 아닌 묻고 답하는 분위기가 아쉬웠음. 도로명 주소에 대한 SNS의견들을 현실적으로 짚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음.

프로그램	여기는 국정기록실		
방송일자	2014. 1. 24. 18:05	시청률	0.067

【총 평】

‘국민행복시대’ 및 ‘희망의 새시대’ 등 메인뉴스에서 다루어진 <현장브리핑>을 종합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만든 전향적 기획이 눈에 띄었음. 단, ‘주간 정책파일’ 및 ‘주간 정책 하이라이트’ 등과의 아이템 차별화를 위한 노력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면 함.

【구성 및 내용】

창조경제, 세계재편의 동력, 한-스위스 정상회담 등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순방 주요장면은 물론 카드고객정보 유출 대책발표 및 매주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등 지난 한 주의 주요 현장브리핑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지난 한 주 동안의 국정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되짚어 볼 수 있게 한 디테일한 기획이 돋보였음.

프로그램	대한민국의 희망, 창조경제		
방송일자	2014. 1. 24. 18:30	시청률	0.026

【총 평】

<은퇴자를 위한 창조경제 - 제2의 인생, 은퇴자 창업>, <창조경제, 미래를 입다 - 3D가상섬유산업>, <상상이 현실로 - 무인자동차의 질주> 등 프로그램 기획의도에 부합한 아이템 선정이 돋보였음. "창조경제가 뭐지?"라고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에게 창조경제는 연령대와 업종에 관계없이 아이디어와 노력만 있으면 이를 수 있다는 예를 보여준 신선한 아이터들이었음.

【구성 및 내용】

신선한 아이터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조명하는 나열식 구성을 했는데 좀 더 다양한 구성으로 각 코너마다 차별성을 두었으면 좋겠음. <은퇴자를 위한 창조경제>의 경우 신선한 아이터으로 성공했다는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부각시키며, 국가나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했고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자세히 조명해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너로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